

## 인간과 건강 수업 사건 개요

-9월 17일 수요일 수업 중 전염병의 전파를 설명하면서 호모포비아 발언

“대부분의 성병은 호모들에 의해서 전염된다,  
요즘 호모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9월 18일 총여학생회로 신고 접수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자보를 기획했으나,

사건 해결에 안 좋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교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도..),

우선 교수에게 메일 보내고 반응 기다리기로함

-9월 28일 월요일 담당교수(박계숙)에게 메일 발송

-메일을 받은 담당교수가 상담소 김영희 선생님과 상담, 피해자의 요구 사항 세가지를 이행  
할 것을 약속함

-10월 3일 담당교수 답장 도착

10월 1일 수업 시간에 사과와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설명에 대해 해명했음을 통보


 > 현재 메일을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인쇄](#) [저장](#) [원문](#)

 또는 받은메일함 < > 으로 [이동](#) [복사](#)

제 목

보낸날짜

보낸사람

받는사람

참 조

첨 부

1.hwp [21KB]

[REDACTED]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입니다

지난 9월 18일 총여학생회로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연세대학교 수업 중에 이루어진 발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인이 불편을 느낀 발언은 9월 17일 수요일의 전염병에 대한 강의에서 전파를 설명하면서 나온 "대부분의 성병은 호모들에 의해서 전염된다. 요즘 호모들이 늘고 있어서 큰일이다"는 표현입니다

동성애자가 성병을 옮긴다는 담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를 내포한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모'라는 표현도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동성애자는 다만,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위의 것과 같은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가 담긴 발언은, 한 인간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성폭력적 발언입니다.

신고인은 본인이 수업시간 중에 성폭력적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한 그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인한 근거없는 혐오가 전달되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교수님의 말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의 해결방안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어 교수님께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아닌, 바른 인식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수요일 수업시간의 성폭력적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사과해주시고, 교수님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다른 학생들에게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시각을 다시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후, 10월 5일 월요일까지 교수님께서 위의 세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메일 보시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을 밝히는 답장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신고자가 쓴 사건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 현재 메일을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인쇄](#) [저장](#) [원문](#)

 또는 받은메일함 < > 으로 [이동](#) [복사](#)

-피해자진술서

진술서

이 기록은 2003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redacted] 강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기록입니다.

저는 [redacted] 연 [redacted] [redacted] [redacted] 에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라고 합니다. 초과 학점 수강 대상자가 아닌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한 학기 당 최대 17 학점까지 만의 수강이 허용되는 연세대학교의 현 학칙 상 저는 2학점 짜리 과목들 중 수강할 만한 과목이 없는지를 탐색하였고, 그러던 중에 [redacted]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는 인간과 건강이라는 과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건강에 대하여 특별하게 찾아가며 공부할 여유가 없었던 저로서는 약간 반가운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얻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평소 약간 소홀히 해 오던 저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도 할 겸, 저는 별 다른 고민 없이 이 강의의 수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진행되지 않은 강의를 제외하고 총 두 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교수님의 강의 중의 일부는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커녕, 일부 발언은 저로 하여금 매우 심한 불쾌함과 불편함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끼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주 수요일 (2003년 9월 17일)에는 전 너무나도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 때문에 도저히 강의의 다음 내용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진행된 강의의 주요 내용은 전염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전염병의 관리와 법정 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의 생성과정과 병원체와 병원소 및 병원소로부터의 병원체의 탈출 등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에 이어서 전파(Transmission)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전염병이 전파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임질이나 매독 등의 성병은 육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전파, 즉 Direct Transmission 에 해당하는 좋은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성병은 호모들에 의해서 전염된다, 요즘 호모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동성애자에 대한 거론을 하시면서, 비하의 의미가 역력한 ‘호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호모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여 사용하시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모두 마치 무슨 병균이라도 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취급을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인 그들에 대하여 그 수가 늘고 있어서 큰일이라는 등의 표현을 통하여 거침없는 반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의 경우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학생 중의 한 명이 아니라 교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학생들 중의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일종의 불쾌감과 불편함, 그리고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그 상황과는 경우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학생 중의 한 명이었을 경우, 그러한 발언은 무시되어도 좋을 만한 것으로 여겨 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다

고 해도 훨씬 쉽게 대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과의 논쟁 혹은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강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합해 놓고 볼 때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인 '교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 교수님의 그러한 견해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의견을 쉽게 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강의실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 사람은 교수님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그 날의 그 강의실에서만큼은 교수와 학생이 대등하지 않았고 평등하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은 이 상황을 충분히 특수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교수님의 전공분야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하셨다는 점입니다.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그러한 발언을 하셨던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은 다른 맥락에서 이 문제를 더욱 특수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지적처럼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점이 첫 번째 문제라면,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견해를 마치 사실인양 설명하셨다는 점일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임질이나 매독을 전염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관계되어 있지 않음이 입증된 주장으로, 그러한 주장이 잘못된 의학 지식이라는 점이 알려진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신다면 그 발언은 매우 사실처럼 들릴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에 여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며, 그야말로 강의식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러한 교수님의 강의 방식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안에 더욱 풍부한 의학 지식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일 것이나,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의 제거나 혹은 질문 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의 역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의 경우도, 교수님은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던 중이었고, 그 중에 등장한 일부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현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었을 뿐 아니라, 성적 소수자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좋지 않은 의미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발언이라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에서 오는 불쾌감과 불편함으로 저는 이어지는 강의에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심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날의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에 와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서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안아야 했던 불편함과 갑갑함, 모욕감과 가슴 아픔이, 이제 그 때보다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서를 쓰는 일 자체도 저에게는 꽤 힘이 드는 일이었고, 또 어떤 언어로 상황을 설명해야 서로의 이해를 이뤄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이 그 같은 발언을 듣고 이런 불쾌감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갖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술서를 접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2003년 9월 21일.



|      |                                                   |
|------|---------------------------------------------------|
| 제 목  | RE:박계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
| 보낸날짜 | [2003년 10월 3일 금요일 오전 10:54:47]                    |
| 보낸사람 | 박계숙<umsorge@yonsei.md> <b>주소록에 추가</b> <b>수신거부</b> |
| 받는사람 | <feminist@yonsei.ac.kr>                           |
| 참 조  |                                                   |
| 첨 부  |                                                   |

총 여학생 회장께;

"인간과 건강"을 수강한 학생이 쓴 진술서를 보내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달리 그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e-mail 을 읽어 보는 순간 나도 당황 했습니다.

총 여학생회에서 써 주신 세가지 요구 사항은 지난 수요일 (10월 1일) 수업을 시작 하면서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그 학생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그 날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런지요 ?

그래서 "인간과 건강" 조교 선생님인 법대 이동혁 군에게 상의를 해 보았는데 이 과목이 2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라 개별적인 질문이나 상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하는 학생은 진료시간에 보건진료소로 찾아 오라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 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의 글을 그 학생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 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여, 험프지 않으면서 풍성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있는 한 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말을 위한 기도 중에서-

2003. 10. 3.

MD Mail | For Medical Doctors Only - [be.MD](#)